

보도 참고자료	2012. 5. 16(수) 08: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	
	배포일시	2012. 5. 16(수) 08:00
	담당부서	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
	담당자	고용통계과장 : 송 성 현 (042.481.2264) 동향분석실장 : 윤 연 옥 (042.366.7301) 서 기 관 : 빈 현 준 (042.481.2265) 사 무 관 : 박 시 내 (042.366.7305)

2011년 중 · 고령세대(45~59세)의 노동력 구조 및 노동기대여명 분석

I . 우리나라의 노동력구조

- (인구구조와 노동력구조) 우리나라의 노동력구조는 인구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, 베이비붐세대 등 인구 급증 연령 집단*이 현재 우리나라 노동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

* 제1차 베이비붐세대, 제2차 베이비붐세대, 제1차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

- 특히 제1차 베이비붐세대('55~'63년생)가 포함된 중·고령세대(45~59세)는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*를 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*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평균연령이 53세로 조사 「고령층 부가조사('11.5월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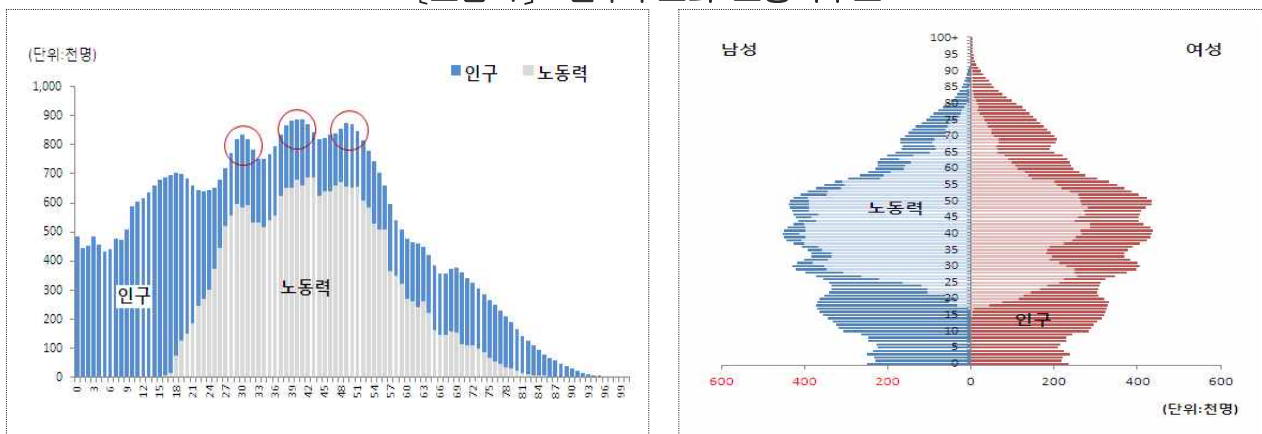
- (중·고령세대 인구) 중·고령세대(45~59세)는 1952~1966년 출생자로 총 인구규모는 1,129만명이며, 전체 인구의 22.7%를 차지하고 있고, 이 중 남성은 569만명, 여성은 560만명임

중·고령층 세대('11년 기준) 45~59세	출생 시기 1952~1966년('11년 기준)	인구 규모 1,129만 명(22.7%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중·고령세대 노동력) 중·고령세대 중 취업자는 83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4.5%이며, 이 중 남성은 495만명(59.3%), 여성은 340만명(40.7%)으로 남성 노동력 비중이 18.6%p 많음

중·고령세대 취업자 수(비중)	전체 835만명(100%)	남성 495만명(59.3%)	여성 340만명(40.7%)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[그림 1] 인구구조와 노동력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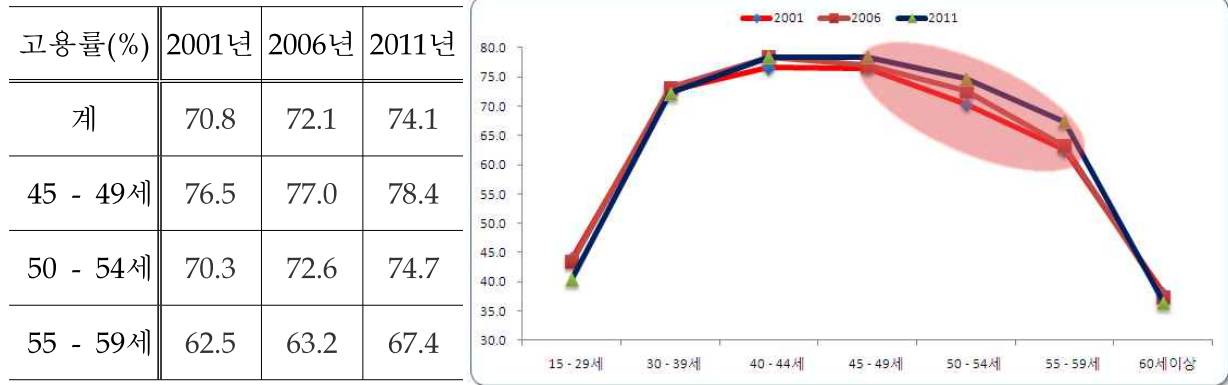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인구추계(2011), 경제활동인구조사(2011)

II. 중·고령세대의 일자리 특성

- (고용률) 중·고령세대의 '11년 고용률은 74.1%로 '01년에 비해 3.3%p 상승하였는데, 특히 50~54세는 4.4%p, 55~59세는 4.9%p 상승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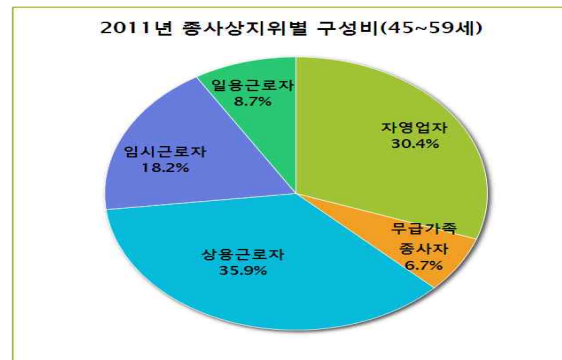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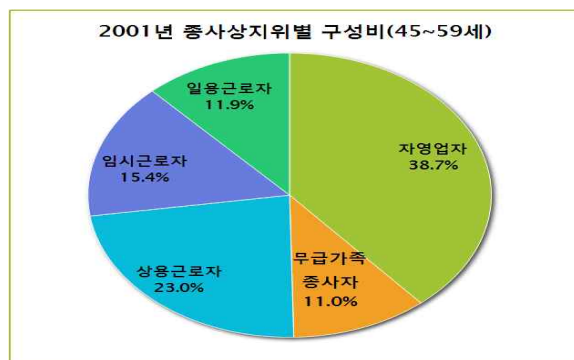
<중·고령세대 고용률 현황>



- (종사상 지위) '11년 중·고령세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변화를 살펴보면, '01년에 비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2.5%p 감소하였고, 임금근로자 비중은 12.5%p 증가하였음

- 특히 상용근로자 비중은 '01년 23.0%에서 '11년 35.9%로 12.9%p 증가하였는데, 이 중 45~49세 상용근로자 비중은 '01년 25.2%에서 '11년 41.7%로 16.5%p 증가하였음

구성비(%)	2001년(A)				2011년(B)				증감(B-A, %p)			
	45~49세	50~54세	55~59세		45~49세	50~54세	55~59세		45~49세	50~54세	55~59세	
비임금근로자	49.7	48.6	49.3	52.2	37.2	32.0	38.8	42.9	-12.5	-16.6	-10.5	-9.3
- 자영업자	38.7	37.9	39.0	39.9	30.4	26.3	31.8	35.0	-8.3	-11.6	-7.2	-4.9
- 무급가족종사자	11.0	10.7	10.3	12.3	6.7	5.8	7.0	7.9	-4.3	-4.9	-3.3	-4.4
임금근로자	50.3	51.4	50.7	47.8	62.8	68.0	61.2	57.1	12.5	16.6	10.5	9.3
- 상용근로자	23.0	25.2	23.0	18.7	35.9	41.7	33.5	30.4	12.9	16.5	10.5	11.7
- 임시근로자	15.4	15.3	15.2	16.0	18.2	18.6	18.9	16.4	2.8	3.3	3.7	0.4
- 일용근로자	11.9	10.9	12.4	13.1	8.7	7.6	8.8	10.3	-3.2	-3.3	-3.6	-2.8



- (산업별 분포) '11년 중·고령세대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등 비중은 '01년에 비해 7.3%p 증가한 반면, 농림어업 비중은 '01년에 비해 7.6%p 감소하였음

< 산업분류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>

구성비(%)	2001년(A)				2011년(B)				증감(B-A, %p)			
		45~49세	50~54세	55~59세		45~49세	50~54세	55~59세		45~49세	50~54세	55~59세
농림어업	13.5	8.5	13.4	22.9	5.9	3.5	5.9	9.8	-7.6	-5.0	-7.5	-13.1
광공업	17.0	19.3	17.0	12.6	17.7	20.6	18.0	12.7	0.7	1.3	1.0	0.1
-제조업	16.8	19.1	16.7	12.4	17.6	20.5	17.8	12.7	0.8	1.4	1.1	0.3
건설업	8.9	9.4	9.0	7.7	9.7	9.1	10.3	9.9	0.8	-0.3	1.3	2.2
도소매·숙박음식업	26.8	29.5	26.2	22.5	23.7	24.2	23.9	22.7	-3.1	-5.3	-2.3	0.2
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	10.4	11.8	10.0	8.3	12.1	11.6	12.3	12.6	1.7	-0.2	2.3	4.3
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등	23.5	21.5	24.4	26.0	30.8	30.9	29.6	32.2	7.3	9.4	5.2	6.2

※ 산업분류별 취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(2001년 자료), 9차개정(2011년 자료) 기준으로 작성

- (직업별 분포) '11년 중·고령세대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, 사무종사자와 기능·기계조작·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'01년에 비해 각각 5.2%p, 4.8%p 증가한 반면,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비중은 7.3%p 감소하였음

< 직업분류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>

구성비(%)	2001년(A)				2011년(B)				증감(B-A, %p)			
		45~49세	50~54세	55~59세		45~49세	50~54세	55~59세		45~49세	50~54세	55~59세
관리자·전문가	14.7	16.3	14.7	11.6	15.7	19.7	13.7	12.1	1.0	3.4	-1.0	0.5
사무종사자	4.8	6.0	4.3	3.2	10.0	12.9	9.4	6.4	5.2	6.9	5.1	3.2
서비스·판매종사자	29.1	31.3	28.2	25.8	25.3	25.4	25.6	24.7	-3.8	-5.9	-2.6	-1.1
농림어업숙련종사자	12.8	8.0	13.0	21.7	5.5	3.2	5.5	9.3	-7.3	-4.8	-7.5	-12.4
기능·기계조작·단순노무종사자	38.7	38.5	39.7	37.7	43.5	38.8	45.9	47.5	4.8	0.3	6.2	9.8

※ 직업분류별 취업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개정(2001년 자료), 6차개정(2011년 자료) 기준으로 작성

Ⅲ. 중고령세대의 노동기대여명

- (노동기대여명) 현재의 노동시장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연수
- (중·고령세대의 노동기대여명) 40대 후반의 노동기대여명은 17.8년, 50대 전반은 14.1년, 50대 후반은 10.6년으로 나타났음

		2001년(A)	2006년	2011년(B)	(단위 : 년) 증감(B-A)
45~49세	전체	16.5	17.2	17.8	1.3
	남성	19.2	20.5	21.2	2.0
	여성	13.8	14.1	14.6	0.8
50~54세	전체	12.9	13.6	14.1	1.2
	남성	15.2	16.4	17.0	1.8
	여성	10.8	11.0	11.4	0.6
55~59세	전체	9.7	10.3	10.6	0.9
	남성	11.5	12.4	13.0	1.5
	여성	8.1	8.9	8.4	0.3

- (노동기대여명의 변화) 40대 후반의 노동기대여명은 '01년 16.5년에서 '11년 17.8년으로 1.3년 증가했으며, 남성이 2.0년, 여성이 0.8년 증가
 - 50대 전반의 노동기대여명은 '01년 12.9년에서 '11년 14.1년으로 1.2년 증가했으며, 남성이 1.8년, 여성이 0.6년 증가
 - 50대 후반의 노동기대여명은 '01년 9.7년에서 '11년 10.6년으로 0.9년 증가했으며, 남성이 1.5년, 여성이 0.3년 증가
- (출생코호트별 노동기대여명) '52~'66년 출생코호트(중·고령세대)의 노동기대여명은 '01년 20.0년, '06년 17.3년, '11년 14.2년으로 기간의 흐름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노동기대여명은 감소

중고령층 세대 (1952~1966년 출생코호트)	2001년(A) (35~49세)	2006년 (40~54세)	2011년(B) (45~59세)	(단위 : 년) 증감(B-A)
전체	20.0	17.3	14.2	-5.8
남성	23.4	20.5	17.1	-6.3
여성	16.7	14.1	11.5	-5.2

- 그러나 중·고령세대(52~66년생)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, 중고령세대의 은퇴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
- '01년에서 '11년 사이 연령은 10년 증가했지만, 노동기대여명은 5.8년 감소하였으므로, 은퇴연령은 4.2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
- 같은 기간 중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은 6.3년 감소하여, 은퇴연령은 3.7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, 여성의 노동기대여명은 5.2년 감소하여, 은퇴연령은 4.8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IV. 시사점

- 현재 중·고령세대(45~59세)는 과거 중·고령세대에 비해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, 산업별로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등,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음
- 아울러 중·고령세대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향후 일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기대여명도 과거세대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
 - 한편 중·고령세대의 연령 증가폭에 비해 노동기대여명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어 이들의 은퇴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
- 또한 현재 중·고령세대(45~59세)취업자가 전체의 34.5%를 차지하고 있고, 이들의 은퇴시기도 늦어지고 있어, 중·고령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잔류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최근 50, 60대 취업자의 증가폭이 커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들의 노동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
□ 노동생명표(work-life table)

- 생명표가 사망확률에 기초해 출생 후 사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산출한 것처럼, 노동생명표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(은퇴)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산출한 것임

□ 노동기대여명(work-life expectancy)

-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(연령별 고용률 등)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취업자가 향후 더 일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연수
- 노동기대여명에 현재의 연령을 합산하면 예상 은퇴연령이 됨

□ 노동기대여명 작성법

① 노동력 정지인구 = 연령별(5세구간) 정지인구* × 취업확률(고용률)

② 해당연령의 노동기대여명 =
$$\frac{\text{총노동력 정지인구}(\sum \text{해당연령 이상의 노동력 정지인구})}{\text{연령별(5세구간) 생존인구**}}$$

* 연령별 정지(靜止)인구 : 정확한 연령 x세에서의 생존자들이 x+n세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연수의 합

** 생존인구 : 동시에 출생한 100,000명이 사망확률에 따라 사망으로 감소할 경우 x세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수

※ 활용자료 : 2001년 노동생명표(2001년 완전생명표, 2001년 경제활동인구조사)
2006년 노동생명표(2006년 완전생명표,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)
2011년 노동생명표(2010년 완전생명표,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)